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 구문의 문법적 특징*

김 종 복[†] 이 승 한 김 경 민
경희대학교

한국어 '것' 표현은 구어체 및 문어체에서 사용빈도 수가 아주 높은 표현 중의 하나이며, 그 사용 기능은 문맥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높은 문맥의존성은 '것' 표현의 문법적 기능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본 논문은 '것' 표현이 통제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고위관료들의 연설문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 말뭉치에서 539 경우의 '것' 표현의 사용 기능을 파악하여 보았다. 연설문에서 사용된 '것'을 형태, 구문적으로 7유형의 주요 구문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갖는 의미, 화용적 기능을 살펴본다.

주제어 : 것, 연설문, 코퍼스

* 본 논문을 읽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042-A00079).

† 교신저자: 김종복,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연구분야: 통사, 의미론, 전산언어학
E-mail: jongbok@khu.ac.kr

머리말

의존명사 ‘것’은 문어뿐 아니라 구어체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다. 2002년 국립국어연구원이 실시한 약 150만 단어(1,484,463)에 대한 빈도수 조사에 따르면 ‘것’은 총 25,567회 사용되어 빈도 순위 1순위로 전체 어휘수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것’의 높은 사용빈도수를 짐작할 수 있다.¹⁾ 특히 ‘것’은 그 사용빈도만큼이나 복잡한 통사, 의미, 화용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문맥 의존도가 높은 ‘것’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설문과 같이 대중에게 정보,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어체에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 다수의 청중에게 간결하고 격식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연설문에서 ‘것’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것’의 문법적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대중을 상대로 정보 전달 및 설득이 주목적인 연설문의 기본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것’의 形態·意味에 따른 분류를 기초로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말뭉치자료는 12~17대 대통령, 국무총리, 대학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백범김구 및 광복회 회장 등이 연사인 연설문들로 이들 말뭉치는 총 36,529 어휘로 구성된 890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설문의 기본 속성

연설문은 ‘한 사람의 화자가 다수인 청중을 상대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 및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speech)의 한 형태’이다(김현국 2001). 연설문의 특징은 일

1) 국어연구소 편(1988)에 따르면 용언 ‘있다’ 3559회, ‘하다’ 3334회의 빈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2년 국립국어연구원이 실시한 총 150만 단어(1,484,463)에 대한 빈도수 조사에 따르면 ‘것’은 총 25,567회로 사용빈도 1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어휘수의 약 2%를 차지한다.

반적으로 일대다(一對多)체제의 담화 형태로, 설득, 이해,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결체(簡潔體), 강건체(剛健體), 건조체(乾燥體)를 사용한다. 또한 메시지 전달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평서문 종결 유형이 대부분 사용되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에서 복수 개념의 어휘를 자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특징을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대다(一對多)체제의 담화

일반 문어체의 대화는 청자와 화자간이 다대다 혹은 다대일로 혹은 일대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연설의 경우 화자 1명이 청중에게 전달하는 일대다 담화맥락이다. 다음 두 맥락은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 심종금 : 이게 소방서에 불이 나고.. 한전이 정전된 격이지..

장용하 : 누군지 정말 겁대가리 없는 놈일세.

남성식 : 용서 못할 놈입니다.

조규원 : 아무튼간에. 이 사건, 니네가 맡기로 했어.

(드라마 '히트')

(2) 여러분들은 우리 새 나라의 기둥감들입니다. 앞날의 우리나라 운명을 걸머지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동지들의 전도는 요원한가 하면 또한 책임도 중차대한 것입니다. 가는 바 앞길이 멀수록 의지가 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책임이 무거울수록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구비해야 될 것으로 말하면, 도덕과 지식이 필요한가 하면 과단성 있고, 모험성 있고, 혁명적 성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드라마 대화 (1)에서는 화자들이 교대로 화자 혹은 청자로서의 역할을 바꿔가며 말차례를 교환하는 반면, 연설문의 일부인 (2)에서 화자는 오직 김구 선생 1명이고 청중은 다수의 일반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설문은 '일대다커뮤니케이션'(one to many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또는 '일대다(一對多)체제의 담화'이다(송명 1996).

설득, 이해, 참여를 이끄는 글

연설의 주목적은 청중을 상대로 설득, 교육 및 계도, 격려 및 위안을 통해 청중의 찬성, 참여,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연설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3) a. 여러 동지들은 나의 주장하는바 쟁족 운동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낮고 힘든 일은 저마다 먼저 하려고 대어 들고, 높고 쉬운 일은 서로 사양한다면 서로 다툼이 없어질 것이요, 모든 일은 잘되어 나갈 것이다.
- b. 오늘 저는 공부방 디딤돌 운동의 출범식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부방 디딤돌 운동을 제창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전-월세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을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3a)에서 김구 선생은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민족 운동에 참여토록 설득하며, 나아가 자신의 ‘사상, 신념, 계획, 존재 의식, 확신, 지식까지 포함한 철학’을 전달한다. (3b)는 한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국무총리 축사의 일부로서, 화자는 청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입시키기 보다는 격려 및 위안을 주고 있다.

간결체(簡潔體), 강건체(剛健體), 건조체(乾燥體)

연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연사가 본인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어체와 달리 간결체(簡潔體), 강건체(剛健體), 건조체(乾燥體)등의 쓰임이 주를 이룬다.

- (4) a. 우리가 오늘처럼 민족사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위인을 상기하며 선열의 생애를 기리는 것은 위기에 처해 향방을 잃고 헤매는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자세를 새로이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민습니다.

- b. 새 대통령으로서 지난날 치열했던 우리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열과 성을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a)에서 보듯이 장황한 설명이나 수식어를 배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4b)에서도 비유나 수사가 거의 없는 건조체(乾燥體) 형식을 띠면서,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고 연사의 의사만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평서문 종결 유형

연설문의 문장 종결 유형은 주로 평서문으로서,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자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자의 신분을 감안하여 매우 격식적이고 공손한 높임 용법도 함께 사용된다. 본 연설문 말뭉치에 사용되는 총 890 문장 중 빈도수가 높은 종결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입니다’, ‘~습니다’, ‘~합니다’ 의 평서문 종결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5)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문장 종결 형태

종류	빈도수	종류	빈도수
~입니다	325	~드립니다	20
~습니다	273	~이다	16
~합니다	140	~한다	16
~아닙니다	30	~시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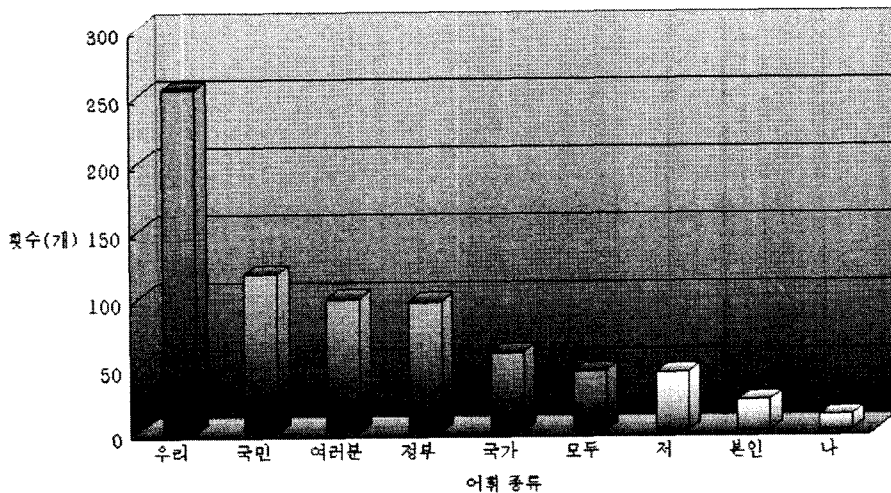
‘~이다’, ‘~한다’와 같은 평서문 종결의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화자가 설명문이나 기사문처럼 종이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또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 위해 짧은 문장 종결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다(남기심, 고영근 1997).

복수 개념의 어휘

연설문의 청자는 대부분 다수의 대중이므로 복수(plural)를 지칭하는 어휘들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1) 청중은 이질적인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아래 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 또는 단체라는 결속의 의미, 2) 화자가 청중과의 연대적 친밀감을 이용하여 연설 내용을 설득하려는 의도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을 살펴보면 본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총 어휘 36,529 중 '본인', '나', '저'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새는 78회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같은 어휘 수 671회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 의식하여 복수 개념의 어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단·복수 의미의 어휘 빈도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의 類型 및 特徵-사용실태 중심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설문은 화자와 청자가 일대일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과는 달리,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문장을 화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다. 또한 저속한 느낌을 주는 속어나 비어는 되도록이면 자제되고, 표준어 사용 및 ‘~합니다.’ 체의 높임 용법이 선택되어 정중하고 격식적이다. 연설문에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사용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사 및 축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대학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백범 김구 및 광복회 회장 등의 연설문을 말뭉치로 구축했다(이정복 2003). 이 말뭉치는 총 890 문장과 36,529 어휘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말뭉치에서 539 경우의 ‘것’ 예문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것’ 구문을 최규일(1993)과 김종복 등(2008)의 ‘것’의 유형 분류를 참조하여, 본 말뭉치에서 사용된 기능적 빈도수 높은 ‘것’ 구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7)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것’ 유형²⁾

구분	유형	연설문(1~539)	
		사용빈도	비율
1	~(으)르+‘것’	261	48.4%
2	S~는/~(으)ㄴ+‘것’+이다/ 것입니다	67	12.4%
3	모든/이/그+‘것’	57	10.6%
4	~S+~(으)ㄴ+‘것’	96	17.8%
5	S+~(으)ㄴ+‘것’+은/는/이+NP+~이다/입니다	25	4.6%
6	S/XP+~(으)ㄴ+‘것’	23	4.3%
7	S/XP+~(으)ㄴ+‘것’+은/는+XP+~이다/입니다	10	1.9%
	총계	539	100.0%

2) 여기서 /XP는 XP가 공소(gap)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S/XP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XP가 빠진 문장을 의미한다.

<~(으)ㄹ+‘것’> 구문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연설문 말뭉치에서 찾은 539 ‘것’ 예문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48.4%) 구문은 <~(으)ㄹ+‘것’> 구문이다. 이러한 <~(으)ㄹ+‘것’> 구문은 일반적으로 서법의 ‘추측’, ‘명령’, ‘미래’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연설문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정호완 1983). 이 구문은 텍스트 상의 전·후 문맥 및 의미에 따라 ‘예측’, ‘의지’, ‘당위 및 의무’, ‘염원 및 당부’, ‘확신’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으)ㄹ+‘것’>의 분류

구분	분류	연설문(1~261)	
		사용빈도	비율
1	예측	106	40.6%
2	의지	85	32.6%
3	당위 및 의무	38	14.6%
4	염원 및 당부	18	6.9%
5	확신	14	5.4%
	총계	261	100.0%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설득, 이해,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연설문 담화에서는 과거, 현재 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연사는 진술 내용에 ‘예측’의 말하기 형식을 담는다. 이는 ‘추측’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상황 개선의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와는 다르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³⁾

‘예측’의 기능을 가진 이러한 구문을 형태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3) 연설문에서 화자는 단정적으로 지시, 명령의 표현을 주로 나타내는 것보다 추측하는 방식을 통하여 청자에게 연설 목적의 당위성을 진술한다(김현국 2001).

(9) 예측 <~(으)리+'것'> 형태

a.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구문+(으)리+것		
	~있다/없다 (존재사)	
주어~	보어+~이/가(보격조사)+~되다 본동사(자동사)+~지(보조적 연결어미)+않다/말다(부정(否定)의 뜻으로 사용)	+(으)리+것
	명사+~되다(피동형접사)/~하다(능동형접사)	
b. 피동법		
주어~	없다(존재사)+~어(피동 보조적 연결어미)+지다(보조동사) 본동사+~게(피동 보조적 연결어미)+된다(보조동사)	+(으)리+것
c. (으)리+수+있다/없다(존재사)		
주어~	목적어+~을(목적격조사)+본동사(능동사)+(으)리+수+있다/없다(존재사)	+(으)리+것
d. 주어(사물, 관념)~	목적어+~을/를(목적격조사)+용언(타동사)	+(으)리+것

이들 경우의 각각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a. 그리고 大企業들이 경쟁력 없는 企業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측, 제 15대 대통령 취임사)

- b.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측,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84년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 c.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 국무총리 연설 공부방 디딤돌 운동 출범식 인사말씀)

- d.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예측,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84년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위의 (9)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측’의 의존명사 ‘것’은 4가지 형태로 특징지어진다. (9a)는 생물, 무생물 모두 취하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구성되며, (9b)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형태이다(김종복 2004; 남기심, 고영근 1997). (9c)는 주어가 1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이며, 서술어 ‘~있다/없다’가 결합하여 <~(으)ㄴ(관형사형 어미)+수+있다/없다>의 숙어형태를 만들고 있다. 이 구문의 특징은 행위자인 주어가 문장의 목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지’의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숙어 형태에 의해서 항상 ‘예측’의 의미로 풀이된다. (9d)는 주어, 목적어, 타동사가 문을 구성하고 있으나, 주어는 사물,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어떤 행위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의 의존명사 ‘것’ 구문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며, 문장의 주어는 사상, 관념, 정책, 사물 등 추상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대상이거나, 또는 비행동성의 1·3인칭으로 자주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예측’ 기능과 달리 <~(으)ㄴ+‘것’> 구문이 ‘의지’의 기능을 가진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연설이 ‘화자가 대중을 상대로 새로운 지식, 정보, 정책을 전달하거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 석상의 말하기 형태’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의지’의 기능을 가진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11) 의지 <~(으)ㄴ+‘것’> 형태~

- a. 주어(1인칭 단·복수)~ (~목적어+~을/를)+본용언+(보조동사) +(으)ㄴ+것 + 입니다/이며/이고
- b. 주어(1인칭 단·복수)~ NP[[S~목적어+~을/를+본용언+(보조동사)+(으)ㄴ+]것] +임을~약속드립니다
 밝혀두는 바입니다
 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의지’의 기능으로 사용된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a. 우리나라민은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나갈 [것] 입니다.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지, 제 16대 대통령 취임사)

- b.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지, 제 16대 대통령 취임사)

‘의지’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1인칭 단·복수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것이다’ 형태가 사용되거나 ‘약속, 다짐, 밝혀둔다’ 와 같은 서술어가 함께 사용된다. ‘의지’ 구문에 주로 사용되는 주어는 ‘우리’, ‘정부’와 같은 1인칭 복수 어휘이거나, 연설의 일대다(一對多) 담화 맥락상 ‘저’, ‘본인’과 같은 강한 의지와 행동성을 수반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복수적 표현은 청자가 대중이라는 점이나 제 3자를 제외한 화자와 청중의 단합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또한 ‘기어이’ ‘꼭’과 같은 부사적 표현이 의지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서정수 1978).

연설문에서 강한 요구의 명령문이나 의문문 형태 보다 간접화행(indirect speech) 방식이 선호된다.⁵⁾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는 것은 청자에게 심적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화자는 표현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Bonvillain 2003). 이는 우회적인 표현이 청중의 동참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의미한다. ‘의무’가 사회, 윤리적으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연설문에서 간접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위 및 의무’의 기능을 하는 ‘것’ 구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야/아야’ 형태의 본동사와 보조동사 ‘~하다’와 같이 사용된다(남기심, 고영근 1997).

4) 화자는 유대감(Solidarity)을 형성하기 위해 상호지칭단어(reciprocal linguistics forms)를 사용한다(Sterling 2000).

5) 김현국 (2001)은 직접적인 화행 보다 간접적인 발화 행태가 오히려 표현 의도를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i) a. 勞動者は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b. 企業은 대담한 기술 혁신으로 국제 경제에서 이겨야 합니다.

c. 국민은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해야 합니다. (당위 및 의무, 14대 대통령 취임사)

i) 은 상기의 내용처럼, 화자가 청중에게 미래 행위에 대한 의무를 진술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시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 (13) a. 이러한 역할은 외교부가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위 및 의무, 송민순 외교 통상부장관 이임사 (08/02/29))

- b.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위 및 의무, 국무총리 연설 (06/11/20))

이들 ‘의무’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주어로는 ‘우리’와 같은 1인칭 복수가 42.1% 비율로 주 사용되고, 그 외 2인칭 복수 ‘여러분’ 및 사물들이 간혹 사용되었다. 이런 복수 인칭의 사용 원인은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당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어야/아야’가 항상 뒤 따르므로, 이들 주어는 국가관, 사회 규범 및 관습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 (14) a. 우리는 지난날의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무 및 당위,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 b.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북한주민의 생활의 기본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이 절대적인 폐쇄성을 지양하고, 밖으로 꼭 닫힌 북한사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위 및 의무,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연설)

위의 문장들이 어느 정도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설득 및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문에서 화자 중심의 명령은 기대되기 어렵고, ‘당위 및 의무’의 기능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으)르+‘것’> 구문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염원 및 당부’의 기능이다. 화자 입장에서 대중을 향한 ‘염원 및 당부’의 의미가 청중을 향한 ‘제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아래 예들에서 보듯이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염원 및 당부’의 의존 명사 ‘것’과 ‘제안’은 서로 다르다.

(15) 염원 및 당부 <~(으)르+'것'> 형태

주어(1인칭 단·복수)~ NP[[S~본용언+(보조동사)+(으)르+]것] +을 ~ 갈망하였습니다/요청합니다/
 NP[[S~본용언+~주다.+~시~+(으)르+]것] 기원합니다/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6) a. 국민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염원 및 당부, 국무총리 연설 2007년도 정부 시무식 신년인사말씀)

b. 지난 36년 간에 있었던 혼란과 전쟁과 갈등이 대단히 어렵고 괴로운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는 스스로 겪은 체험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통으로 부터 해방될 [것]을 줄기차게 갈망하였습니다.

(염원 및 당부,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위의 예문에서처럼 ‘기대’, ‘부탁’, ‘갈망’, ‘기원’, ‘당부’등과 같은 ‘염원 및 당부’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사용되고, ‘주실 것’과 같은 높임말 표현도 함께 사용된다.

<~(으)르+'것'> 구문의 마지막 주요 기능은 ‘확신’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행동자가 서술되는 상황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염원’ 보다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 구문의 유형과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확신 <~(으)르+'것'> 형태

주어(1인칭 단·복수)~ (으)르+것 +~이라고/이라/으로/임을 +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8) a. 법률절차가 끝나면 애지기금 구조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 환수재

산은 민족정기 선양과 불우회원 복지에 항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 광복회 광복회장 개회사 (08/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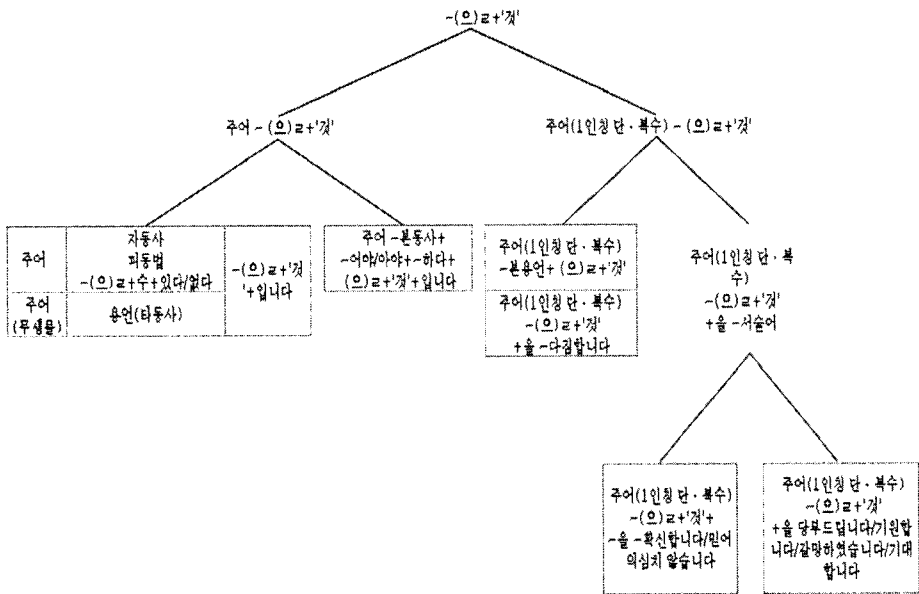
b. 각계의 이러한 노력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확신, 18대 국회 개원 대통령 연설 (2008/07/11))

위의 예문에서처럼 ‘믿습니다’ 혹은 ‘확신합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함께 사용된다. 이 경우 주어는 ‘확신’을 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항상 1인칭 단·복수가 사용되며, 생략의 경우 전후 문맥에 의해 파악가능하다. 또한, ‘확신’의 수준은 ‘염원 및 당부’ 보다 한층 강한 믿음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으)르+‘것’> 구문의 기능적 분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9) <~(으)르+‘것’> 구문



행동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야/아야' 형태의 본동사가 나타나는 경우 '당위 및 의무'의 의존명사 '것'으로 먼저 분류된다. 이와 달리 비강제성이 내포되는 경우는 '예측'의 '것'으로 정의되며, '의지'의 '것'은 1인칭 단·복수 주어가 특정 행위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서술되는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확신'의 '것'은 <~(으)ㄴ+'것'> 구문을 취하는 서술어의 의미가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염원 및 당부'의 '것'은 서술어가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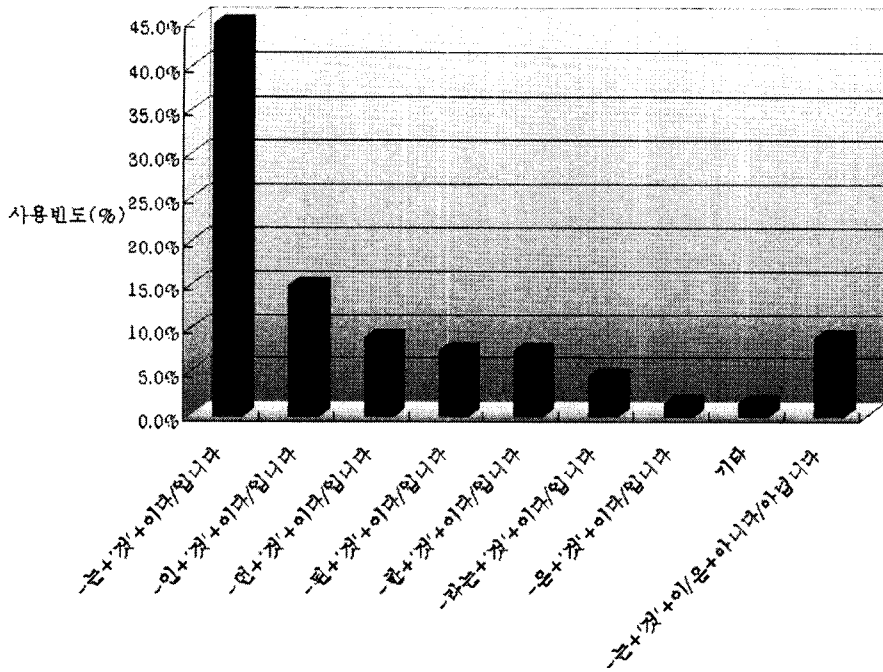
<S~는/~(으)ㄴ+'것'+이다/입니다> 구문

청중을 상대로 설득, 이해,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설에서 특정 진술에 대한 사태 강조 또는 격식성·공식성·단언성 등의 문체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것'이 계사 '이다'와 결합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⁶⁾(홍사만 2006). 이러한 유형들을 형태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S+관형사형(~는/~(으)ㄴ)+'것'+이다/입니다

(21) <S~는/~(으)ㄴ+'것'+이다/입니다> 형태

6) 김종복 등 (2008)은 이를 '사건 강조 구문'으로 분류한다.



(22) a. 그것은 우리의 지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굳건한 국민안보가 토대로 되어있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건 강조,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b.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강조, 제 16대 대통령 취임사)

c. 그러므로 현하 우리의 임무는 번다(繁多)하고 복잡하며 우리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사건 강조, 백범 김구 연설)

d. 따라서 북한당국은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성해야 함은 물론 세계 인류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건 강조,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본 연구의 사건강조 구문 67회 중 44.8%로 가장 높은 빈도율을 나타내는 <~는/ㄴ+‘것’+이다>의 주 기능은 화자가 이미 완결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술하고, 그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시켜 줄 때 흔히 사용된다. <~는+‘것’+이다/입니다> 구조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나 사실을 기술하는 기능이며, <~인+‘것’+이다/입니다>은 서술명사와 ‘것’이 결합하여 자명한 명제에 대해 서술한다(김상기 1994). <~던+‘것’+이다/입니다>는 9.1% 사용빈도로 과거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의 의미가 있다. <~된+‘것’+이다/입니다>는 과거의 목적 대상이 현재에 이르러 결과물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술된다. <~는+‘것’+이/은+아니다/아닙니다> 형태는 진술 내용이나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러나’, ‘결코’ 등의 어휘와 결합하거나 ‘국민 여러분’과 같은 부름말(호칭어)이 문두에 사용됨으로써 부정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더불어 ‘즉’, ‘그러므로’, ‘마침내’, ‘따라서’, ‘다시 말하면’ 등과 같은 접속부사는 <~는+‘것’+이다/입니다>의 문두에 사용됨으로써, 진술 내용을 요약 또는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모든/이/그+‘것’> 구문

의존명사 ‘것’은 체언과 다르게 자신의 관형어(specifier)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존명사로 분류된다. 연설문 말뭉치에서도 ‘것’이 관형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약 10.6% 비율을 차지하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23) a. 저는 이러한 精神革命과 바른 社會의 具現에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제 15대 대통령 취임사)

b. 우리의 순국선열들은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 바로 이상 국가 건설을 꿈꾸며,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소중한 재산, 심지어는 가족들의 안전마저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바쳤습니다.

(광복회 강원도 원주연합지회 출범식 광복회장 축사 (08/06/27))

관형어 ‘모든’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관형어로 총 8회 중 6회에 걸쳐 나

타난다. ‘이’, ‘그’는 가장 흔히 쓰이는 지시 관형사로써, 연설문 말뭉치에서 45회 사용되고 있다.

(24) a. 그러나 본인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그 [것]은 우리의 지표가 아무리....

(제12대 대통령 취임사)

b.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제 17대 대통령 취임사)

<이/그+‘것’>은 주로 구체적인 사물 명사 보다 앞의 문맥적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구문 뒤에는 주격, 목적격 조사 뿐만 아니라 계사 ‘~이다’와도 함께 사용된다(서정수 1994). 연설문 말뭉치에서 <저+‘것’>의 쓰임새는 전혀 없다. ‘저’는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한 관계 하에 이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대상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만 사용되므로, 연설문에서 이러한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구문

지금까지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의존 명사 ‘것’의 여러 주요 구문의 유형과 속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 주요 구문들을 살펴볼 수 있다.

(25) 기타 구문

유형
· <~S+~(으)ㄴ+'것'>
· <S+~(으)ㄴ+'것'+은/는/이+NP+~이다/입니다>
· <S/XP+~(으)ㄴ+'것'>
· <S/XP+~(으)ㄴ+'것'+은/는+XP+~이다/입니다>

- <S+~(으)ㄴ+'것'>형태는 완전한 S가 주절의 명사구에 내포되는 절로서 의존명사 '것' 사이에 이른바 관형화소(~(으)ㄴ)라는 보문자로 이루어진다(남기심 1989; 엄정호 2005). 이러한 구문은 '것'과 함께 명사구를 이루어 주어, 목적어, 서술 보어 등 문장의 여러 성분이 된다.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사용빈도는 17.3%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6) 헌법에 충실하고 모든 법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 해방을 촉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보문구조, 제 12대 대통령 취임사)

- <S+~(으)ㄴ+'것'+은/는/이+NP+~이다/입니다>는 위의 보문구문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S+~(으)ㄴ+'것'>뒤에 동격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가 뒤따라 나오는 동격구문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27) 이러한 현실에서 전·월세 물량에 대한 정보와 법률, 금융상담 등에 대한 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격구문, 국무총리 연설 임차인지원센터 개소식 축하말씀 (07/01/15))

- <S/XP+~(으)ㄴ+'것'>은 문장 성분(XP)이 하나 빠져있는 관계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장과 의존명사 '것'이 서로 결합되어, 명사구 역할을 한다(고영근, 구분관

2008; 서정수 1994).

(28)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관계절 구문,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5년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 <S/XP+~(으)ㄴ+‘것’+은/는 XP+~이다/입니다>은 영어 분열문(cleft)과 동일하다 (김종복 등 2008; 손춘섭 1997). 이 구문은 완전한 문장 S에서 한 성분(XP)을 의존명사 ‘것’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요소를 강조한다.

(29) a. 가까운 일본이 자본을 회수하고, 미국의 자본도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를 믿고 지켜준 [것]은 유럽,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분열문 구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한EU상공회의소 간담회 연설 (08/06/10))

b. 제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1년 춘천에서 탄약 창고병으로 군복무중 일 때였습니다.

(분열문 구문, 송민순 외교 통상부장관 이임사 (08/02/29))

연설문 말뭉치에서는 주어, 목적어, 또는 부사절 등이 주로 XP로 이동한다. 본 자료에서 분열문의 사용빈도가 미미한데, 이는 연설문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말하기 형식은 화자와 청자 간에 정보의 교환이 있고, 그 정보에 대한 서로의 이해 및 확인 절차가 있다. 이런 경우 양자 간 인지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분열문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화자만 정보를 알고, 화자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것의 쓰임새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연사가 청자의 이해 수준 및 그들의 사전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 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열문 사용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본 연구는 구어체 중심에서 벗어나 연설문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의존명사 ‘것’의 형태, 기능 및 의미 분류에 초점을 두었다. 연설은 일반적인 문체와 다르게 1인 연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청중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설득 및 진술을 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며, 표준어 사용 및 ‘~합니다.’ 체의 높임 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화자 중심의 1인칭 대명사 ‘저’, ‘본인’, ‘우리’ 등의 어휘 및 복수 개념의 단어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총 890 문장 및 36,529 어휘의 말뭉치에서 539 개의 ‘것’ 예문들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그것들은 형태적 기준에 의거하여 7가지의 주요 구문으로 분류되었으며, 의미, 화용적 속성들에 의해서도 자세하게 다뤄졌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연설문의 속성을 반영하여 ‘예측’, ‘의지’, ‘당위 및 의무’, ‘염원 및 당부’, ‘확신’ 등의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것’의 문법적 기능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연사의 개인적 말하기 형태에 따라 연설 자체의 느낌 및 문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유형 및 특징의 일반화가 한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연설문과 같은 특수 기능을 가진 텍스트에서 ‘것’의 실제 사용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것’의 문법적 기능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복, 강우순, 안지영. 2008. 말뭉치에 나타난 ‘것’ 구문의 유형 및 특성. 『언어과학연구』 45, 141-163,
김종복. 2004. 『한국어 구구조문법』. 한국문화사.
고영근, 구분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현국. 2001. 연설문의 문제 연구-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3, 243-297,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상기. 1994. ‘관형형어미+것이다’ 구문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 학위 논문.
- 남기심, 고영근. 1997.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 1989.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 손춘섭. 1997. 의존명사 ‘것’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38, 47-62, 한국언어문학회.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서정수. 1978. ‘르 것’에 관하여-‘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어학」 6, 85-110, 국어학회.
- 송 명. 1996. 『청중을 사로잡는 청중시대 연설문 작성법』. 신세대
- 이정복. 2003.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33, 213-237, 배달말학회.
- 엄정호. 2005.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태학사.
- 정호완. 1983. 불완전 명사 {것}에 대한 고찰. 「우리말글」 1, 49-72, 우리말글학회.
- 최규일. 1993. <어학>한국어{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 「새국어교육」 50, 63-127, 한국국어교육학회.
- 홍사만. 2006.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101-144, 한국문학언어학회.
- Bonvillain, Nancy. 2003.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Sterling, Polly. 2000. Identity in language: An exploration into the social implications of linguistic variation. *Agora*, 1(2), Disponible en: <http://glasscock.tamu.edu/agora/winter00/sterling.pdf>. Acceso: 19.10.06

<말뭉치 자료>

제 12~17대 대통령 취임사 연설문

도서관 협회 총장 연설문 신일회 (계명대학교 총장)

백범 김구 연설문 “여러분들은 우리 새 나라의 기둥감들입니다.”

- 백범 김구 연설문 “우리는 쟁족 운동을 하자”
백범 김구 연설문 국내외 동포에게 고향(1945. 9. 3.)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한EU상공회의소 간담회 연설 (08/06/10)
국무 총리 연설 공부방 디딤돌 운동 출범식 인사말씀 (07/01/18)
국무 총리 연설 임차인지원센터 개소식 축하말씀 (07/01/15)
국무 총리 연설 대덕특구 과학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07/01/11)
국무 총리 연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07/01/08)
국무 총리 연설 2007년도 정부 시무식 신년인사말씀 (07/01/02)
국무 총리 연설 노벨평화상수상 6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의 밤’ 축하 (06/12/07)
국무 총리 연설 제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축하 (06/12/05)
국무 총리 연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5주년 기념식(06/12/01)
국무 총리 연설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사 (06/11/17)
광복회 강원도 원주연합지회 출범식 광복회장 축하 (08/06/27)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제100주년 기념식 광복회장 축하 (08/06/21)
제88주년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식 광복회장 축하 (08/06/09)
광복군 무후선열 추모제 광복회장 추모사 (08/05/27)
광복회 제35차 정기총회 광복회장 개회사 (08/05/13)
매헌 윤봉길 의사 제76주년 의거 기념일 광복회장 기념사 (08/04/29)
제89주년 3.1절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 기념사 (08/03/01)
유명환 외교 통상부장관 취임사 (08/02/29)
송민순 외교 통상부장관 이임사 (08/02/29)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광복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이명박 대통령 (2008/08/06)
“공무원의 힘이 곧 나라의 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08/07/26)
올림픽 선수촌 격려 편지 이명박 대통령 (2008/07/25)
헌정회 임원 초청 대통령 만찬사 (2008/07/17)
18대 국회 개원 대통령 연설 (2008/07/11)
반기문 UN 사무총장 방한 대통령 만찬사 (2008/07/04)

인지과학, 제19권 제3호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통령 축사 (2008/07/03)

제 58주년 6.25 참전용 위로연 대통령 격려사 (2008/06/25)

미 일 순방 관련 기자회견 대통령 모두 연설 (2008/04/13)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대통령 연설 (2008/04/15)

<인용된 자료>

드라마 ‘히트’

1 차원고접수 : 2008. 8. 24

2 차원고접수 : 2008. 9. 19

최종게재승인 : 2008. 9. 26

(Abstract)

Grammatical Properties of Kes Constructions in a Speech Corpus

Jong-Bok Kim Seung-Han Lee Kyung-Min Kim
Kyung Hee University

The expression 'kes'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ones in the language whose uses are highly dependent upon the context. These highly-context dependent uses make it hard to determine its grammatical properties. As a way of examining the properties in a rather controlled context, this paper collects a series of speeches made by government officials and examines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the expression in the corpus. In particular, the paper, based on the 539 instances of 'kes' uses extracted from the corpus, focuses on the 7 types of 'kes' constructions most widely used in the collected speech corpus.

Keywords : kes, speeches, corpus